월간 「산업보건」의 노력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월간 「산업보건」의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산업보건」은 지난 33년 동안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통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며 대한민국 산업보건환경의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느 때 보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일터와 일상이 변화하고 있고, 미래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한번 시작한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간 「산업보건」 400호 발간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월간 「산업보건」의 노력이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월간 「산업보건」이 현장의 보건관리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전달하길 바라면서, 산업현장 속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대수(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월간 「산업보건」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온 월간 「산업보건」의 4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전국의 애독자, 산업보건인 여러분들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월간 「산업보건」은 1988년 4월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작업환경관리를 위해 산업보건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창간되어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날 400호 발행까지 이어져 오게 해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협회는 1963년에 창립된 후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산업보건인들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초반, 보건의료인들에게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과 질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주목받는 일도 아니고,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인내가 필요한 산업보건 분야에서 협회가 지난 60년을 꾸준히 활약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산업보건인들의 공익을 위한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산업보건의 역사와 함께하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해 온 협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이상 위험한 일터를 방치하지 말라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지난 7월 1일 출범하여 산업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보건 조직을 보강하여 직업건강증진팀을 신설하여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과로사, 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에도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지금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월간 「산업보건」이 정부와 산업보건인, 현장 간 소통의 디딤돌이 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간 「산업보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4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월간「산업보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 될 것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월간「산업보건」4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1988년 4월 첫 호를 시작으로 3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근로자와 사업장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 역대 발행인분들과 편집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월간 「산업보건」은 그동안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로 근로자 건강증진과 일터의 작업환경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정보의 전달자로서 또 건강지킴이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대한산업보건협회가 60여 년간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 가치이며,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월간「산업보건」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시될 것입니다.
월간 「산업보건」이 사람과 일터를 잇고 세상을 밝히는데 일조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4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월간 「산업보건」이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발전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늘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두용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에 훌륭한 기여를 하기를

구정완
대한직업환경
의학회 회장

월간「산업보건」제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산업보건」은 1988년 4월 제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월 산업보건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습니다. 그동안 산업보건교육 강화, 산업보건의 근본문제와 개선, 편집위원회 1기 위원장인 이광묵 교수의 '산업보건의 발자취', 산업보건 연구방법, 산업보건 정책 건의문과 다짐, 해외 산업보건 관련 자료, 윤임중 회장의 수필인 '윤선생 이야기',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보건 정보, 제언과 기고 등 다양한 산업보건 분야의 이슈를 다루어왔습니다.

월간 「산업보건」의 주 독자층은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입니다. 산업보건에서 다루는 정보가 실무에 적용되도록 보다 전문성이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33년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사내기자를 임명하여 내부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향후에는 외부 보건관리자의 원고를 활성화하여 보건관리자와 보건담당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를 넓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보건 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처하고 선도해 나가는 발간물로서 대내외 전문가의 다양성과 혜안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정기간행물이 되어 산업보건 분야의 발전에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구정완

월간 「산업보건」 4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윤충식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산업보건」의 400호 발간을 크게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에서 협회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이 신설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된 1963년에 협회가 창립되었으니 역사적인 궤적뿐 아니라 현재까지 가장 큰 민간 산업보건 조직으로 전국적 산업보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협회가 노동자 대상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또한 지식의 전파를 위해 1984년 월간 「산업보건」을 창간해서 현재 400호에 이르고 있다니,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학회의 간사,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회장으로서 학술지 발간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술지는 분기마다 발간되는 성격인 데 비해 협회의 「산업보건」은 월간으로 발행되어 그 어려움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전문학술지가 담지 못하는 다양한 산업보건 관련 정보, 구성원과 유관조직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학술지와의 틈을 잘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등 안전이슈에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산업보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산업재해를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바른 정보전달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역할을 산업보건지가 충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전통적 방식인 책자 발간과 더불어 책자와 연계하여 독자층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통방식(예, QR코드 인식, 인포그래픽 사용, 쌍방향 소통)으로 월간 「산업보건」이 발전하여 향후 더욱더 산업보건 정보전달의 훌륭한 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00호의 발간을 축하하며 향후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윤충식

월간「산업보건」이 매호 성실하게 발전해 나가길

이윤정
한국직업건강
간호학회 회장

백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입니다. 또 백이라는 숫자는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온도이기도 하지요. 즉, 무엇인가가 이제 완성되어 충만해졌다는 의미이면서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백 년이라는 기간은 1세기를 의미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험은 만점의 기준으로 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의 백을 4번이나 거쳐 월간「산업보건」이 이제 400호를 낸다고 합니다. 100호를 발행하는 것만 해도 햇수로 따지면 얼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산업보건의 영역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서로 간의 소식에 목말라하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뭔지 고민할 때, 월간「산업보건」이 사람들을 모아주고 큰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400호를 내기까지 월간「산업보건」이 헤쳐왔을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극복 과정에서 이제 월간「산업보건」은 산업보건인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찾아 읽는 좋은 잡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처음의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발전해야한다는 명제이지요.

월간「산업보건」의 그간의 표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언젠가 1,000호 축하 메시지를 적는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월간「산업보건」이 매호 성실하게 발전해나가기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회장 이윤정

월간 「산업보건」 400호 발간 축사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산업보건」의 4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보건」은 노동자 보건에 대한 사업주들의 저조한 인식과, 관련 자료도 턱없이 부족했던 지난 1988년 처음 발행됐습니다.
지난 30여 년 간 수준 높은 산업보건 전문지식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며, 국내 보건 전문인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 왔으며, 특히 전국 보건인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보건관리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일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이며, 산업현장 노동자 건강보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보건 분야에 실효성 높은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학 각계에 다양한 의견을 전하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요즘과 같이 노동자 건강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주들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업보건」의 숨은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일터에 '보건'의 가치가 활짝 꽃피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쉴 새 없이 달려온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산업보건」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400호를 맞이한 「산업보건」이 국내 대표적인 전문 보건 매체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산업안전협회도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함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박종선